

참조 : “그림으로 만나는 성리학 이황의 성학십도”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삼성출판사

참조 : NAVER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성학십도 [聖學十圖]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하여 사물의 무수한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이러한 성찰의 자세를 떠나면, 사사로운 욕심이 옳지 않은 일의 실마리로 나타나게 된다.

- ▶ 조선 중기의 학자 이황(李滉)이 1568년(선조 1) 12월 왕에게 올린 상소문.
- ▶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군왕의 도(道)에 관한 학문의 요체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퇴계문집》 중 내집(內集) 제7권 차(筴)에 수록되어 있다.
- ▶ 이황의 《성학십도》는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선조에게 68세의 노대가(老大家)가 바로 즉위 원년에 올렸던 소였음을 감안할 때, 선조로 하여금 성왕(聖王)이 되게 하여 온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간절히 바라는 우국충정에서 저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 《성학십도》는 서론의 내용이 담긴 <진성학십도차>에서 시작해 10개의 도표와 그 해설로 되어 있다. 도표는 태극도(太極圖)·서명도(西銘圖)·소학도(小學圖)·대학도(大學圖)·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인설도(仁說圖)·심학도(心學圖)·경재잠도(敬齋箴圖)·속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이다.

<진성학십도차>에서 이황은 “성학에는 커다란 단서가 있고, ……백성의 지도자가 된 분의 한 마음은 온갖 징조가 연유하는 곳이고, 모든 책임이 모이는 곳이며, 온갖 욕심이 잡다하게 나타나는 자리이고, 가지가지 간사함이 속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소홀해 방종이 따르게 된다면, 산이 무너지고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위기가 오고 말 것이니, 어느 누가 이러한 위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삼가는 애뜻한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생활을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고 하면서 《성학십도》를 올리는 진의를 밝히고 있다. 이황은 왕 한 사람의 마음의 징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삼가는 경(敬)의 내면화를 중요시하였다.

10개의 도표 가운데 7개의 도표는 옛 현인들이 작성한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을 골랐고, 나머지 3개의 도표는 이황 자신이 작성한 것이다. 7개의 현인들 도표 가운데 심통성정도는 정복심(程復心)이 작성한 것이고, 이황은 이 도표에 2개의 도표를 첨가하였다. 이렇게 첨가한 2개의 도표에서 이황은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이기(理氣)의 내용을 곡진하게 도해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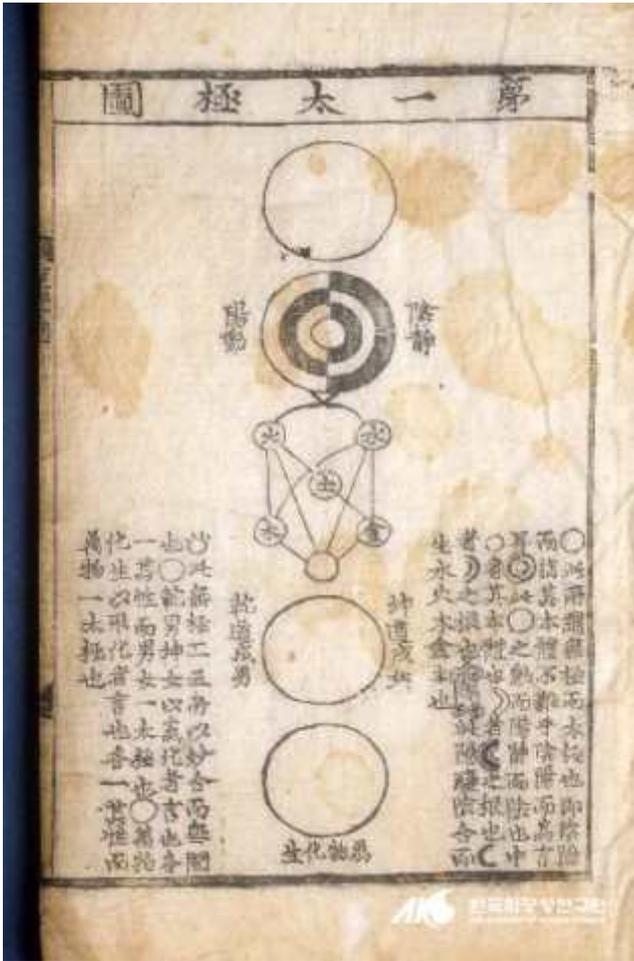
이황 자신이 작성한 도표는 소학도·백록동규도·속흥야매잠도 등의 3개로 제1도에서 제10도에 이르기까지 경의 의미가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십도의 내용 서술은 도표와 함께 반드시 앞부분에 경서(經書)와 주희(朱熹) 및 그 밖에 여러 성현의 글 가운데 적절한 내용을 인용한 뒤 저자 자신의 학설을 전개하고 있다.

제1도에서 제5도까지는 “천도(天道)에 기본을 둔 것으로, 그 공과(功課)는 인륜(人倫)을 밝히고 덕업(德業)을 이룩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다.”고 하며 그 대의를 밝히고 있다.

제6도에서 제10도까지는 “심성(心性)에 근원을 둔 것으로, 그 요령은 일상 생활에서 힘써 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앞의 5개 도표는 천도에 근원해 성학을 설명한 것이고, 나머지 5개 도표는 심성에 근원해 성학을 설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① 태극도(太極圖)



- 중국 송나라 주돈이(1017-1073)학자가 그린 그림

- 태극 : '큰 기준이나 원리', 최고의 기준이나 원리

- 우주적 차원에 이르면 개별적인 윤리나 기준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원리나 기준으로 통합된다.

- 태극의 성질은 형체가 없는 무극이다.

성리학의 입장 : 태극은 무극이다.
 도교의 입장 : 태극은 무극에서 나왔다.

- 하나가 둘로, 곧 태극이 음과 양이란 두 가지 성질로 나누어진다.

-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았는데 그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고요해진다. 이 고요함이 음을 낳는다. 다시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즉, 태극이 운동을 하여 움직임(動)과 고요함(靜)을 반복하여 음양(陰陽)이 생겨난다.

- 음양이 변화하여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 5가지를 생성하며 이는 서로 상생, 상극하면서 만물을 만든다.

- 사람이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어떠한 작용인데 이는 말로 하기 힘든 정밀하고 신묘한 작용인데 이를 정신(精神)이라 한다.

- 사람의 인식작용은 보편적인 원리나 기준에 따라 일구어지는데 그 보편적인 원리가 사람의 본성이며 이 본성에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다섯 가지가 있다.

② 서명도(西銘圖)



- 송나라 철학자 장재(1020-1077)의 글을 원나라 때 정복심(-)이라 학자가 그린 그림

- '서명도'는 장재가 서쪽 창가에 붙여놓은 좌우명을 말하는 것으로 '동명도'라는 글도 있음

- 서명은 유교에서의 윤리규범이 어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줌

- 우주차원의 보편적 진리에서 출발함

① 우주가족과 그사이의 계층적 질서

-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운 것이 나의 몸을 이루고, 하늘과 땅을 이끄는 것이 나의 본성을 이룬다.

② 하늘의 명인 효를 따르는 것

- 하늘의 명령을 즐겁게 따르며 어떤 고난에도 근심하지 않는 것은 효에 순수한 것이다. 효를 실천하는 것이 곧 아버지인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③ 효자의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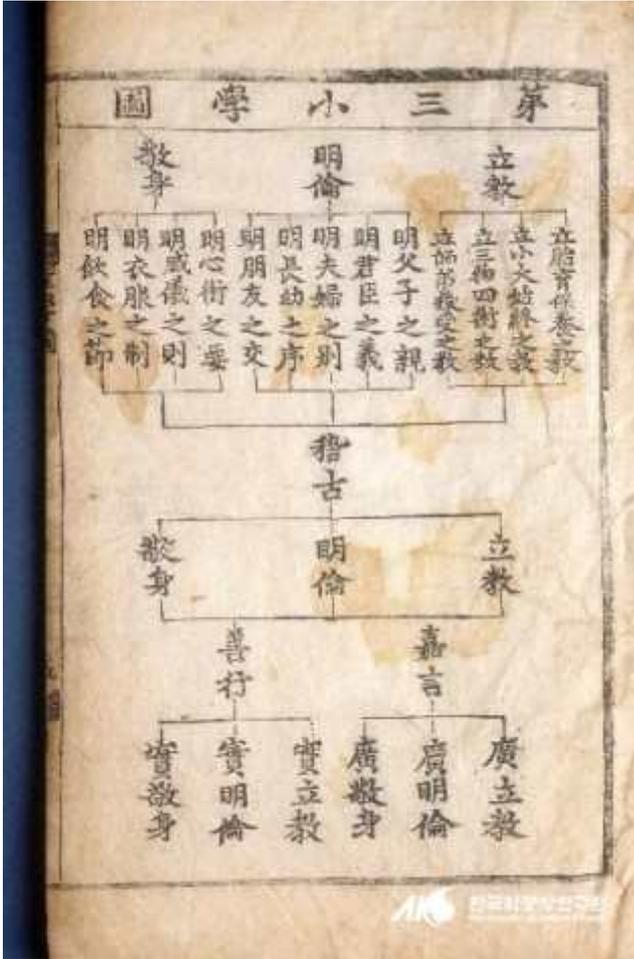
④ 자신의 다짐

- 내면의 힘(도덕)에 의거 나는 살아서는 따르고 섬길 것이며, 죽어서야 비로서 편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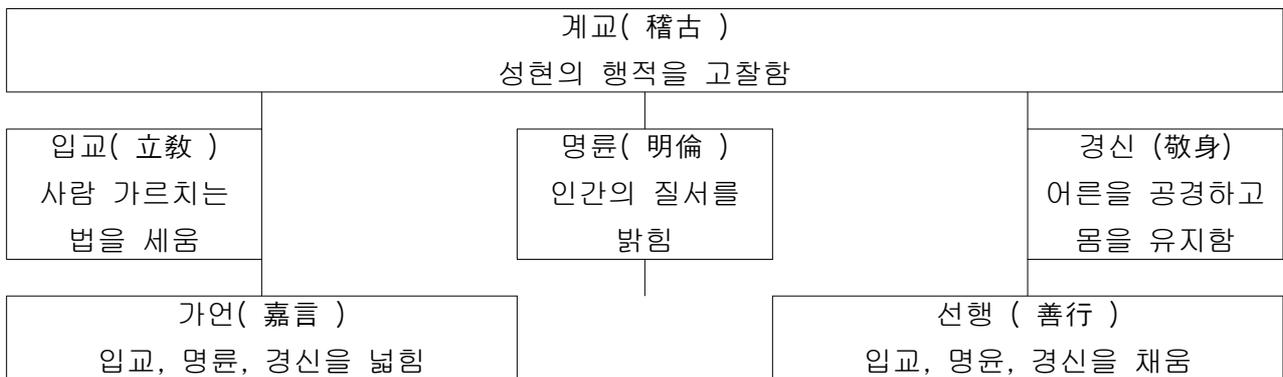
- 성리학의 도덕 윤리는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다. 살아있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고 죽어서 쉼 뿐이다.

*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③ 소학도(小學圖)



- 소학도는 “소학”이라는 책의 서문을 그린 그림
- 주희(1130-1200)는 교육을 소학과 대학으로 나눔 즉, 어린이 교육과 어른교육을 나타냄
- ‘소학’은 ‘명심보감’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 어린이 교과서 임
- 소학이란 경건함을 배양하는 공부를 말함
- 소학도는 여섯편으로 구성되어 있음



④ 대학도(大學圖)



- 조선의 학자 권근이 그린 그림
- 권근은 정도전과 함께 조선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서 정도전은 이방원에 대항하였고, 권근은 이방원에 동조함.

- ‘대학’은 ‘중용’과 함께 ‘예기’라는 책의 일부임. 주희는 전해지는 대학을 새롭게 작성하여 ‘대학장구’라는 책을 펴냄

- 주희의 ‘대학장구’는 3강령 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이성을 통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길을 제시하고 있음

- ① 3강령은明明덕, 신민, 지어지선
- ② 8강령은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 3강령 8조목 그자체가 이성에 대한 논리체계 이면서 이성을 실현하는 방법임

- ①明明덕 (明明德) : 밝은덕 도덕적 이상을 밝힌다.
- ②신민 (新民) 백성을 새롭게 한다. 통치자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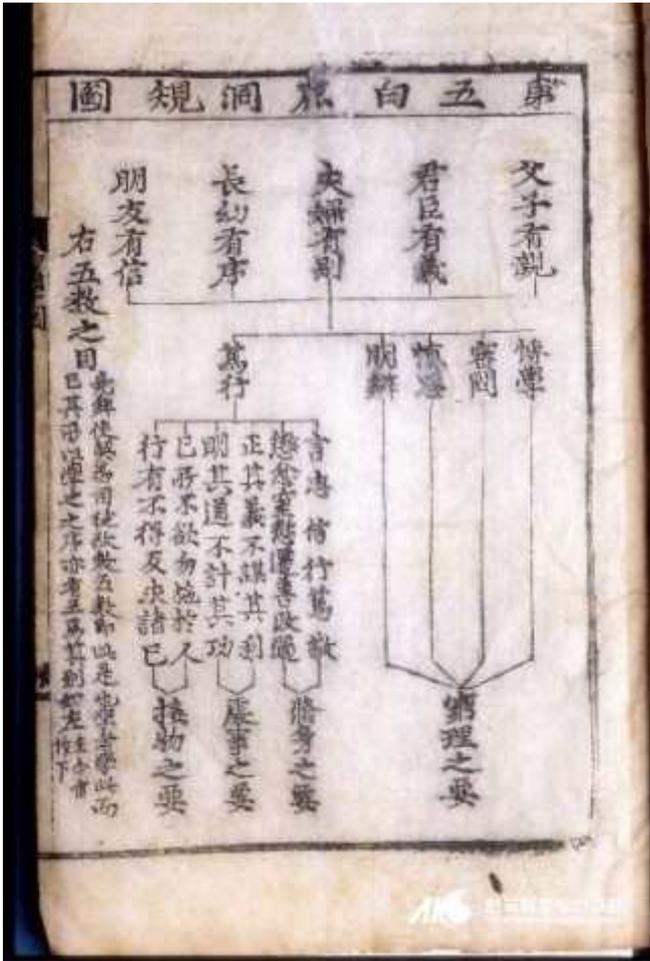
③ 지어지선(至於至善) : 지극한 선 (올바름)에 머무른다. 자신의 도덕적 이상을 밝혀 가장 완성된 형태의 도덕에 이른다.

- 3강령의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8강령이다. 8강령은 시간적 순서가 아닌 논리적 순서이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 (1) 격물 (格物) : 사물을 연구한다.
- (2) 치지(致知) : 앎을 이룬다.
- (3) 성의 (誠意) : 자신의 생각 또는 의식을 성실하게 한다.
- (4) 정심 (正心) : 자신의 치우친 마음을 바르게 한다.
- (5) 수신 (修身) : 몸을 닦는다. (대상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우친 마음을 바로잡는다.)
- (6) 제가 (齊家) (7) 치국(治國) (8)평천하 (平天下) : 자아를 다른 것과의 관계속에서 적극적으로 넓혀감 (가족, 나라, 세상 등등)

- (1)(2)는 앎을 (3)(4)(5)는 실천을 (6)(7)(8)은 실천의 확대를 설명하고 있음

⑤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



- 주희가 쓴 '백록동서원게시'라는 글을 이황이 직접 그림

- 인간관계의 기본법칙 오륜(五倫)에 대한 이론과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

삼강오륜[三綱五倫]: 유교(儒敎)의 도덕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3가지의 강령(綱領)과 5가지의 인륜(人倫)

- *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 :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 * 오륜은 《맹자(孟子)》에 나오는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의 5가지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道)는 친애(親愛)에 있으며,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치 못할 인륜(人倫)의 구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벗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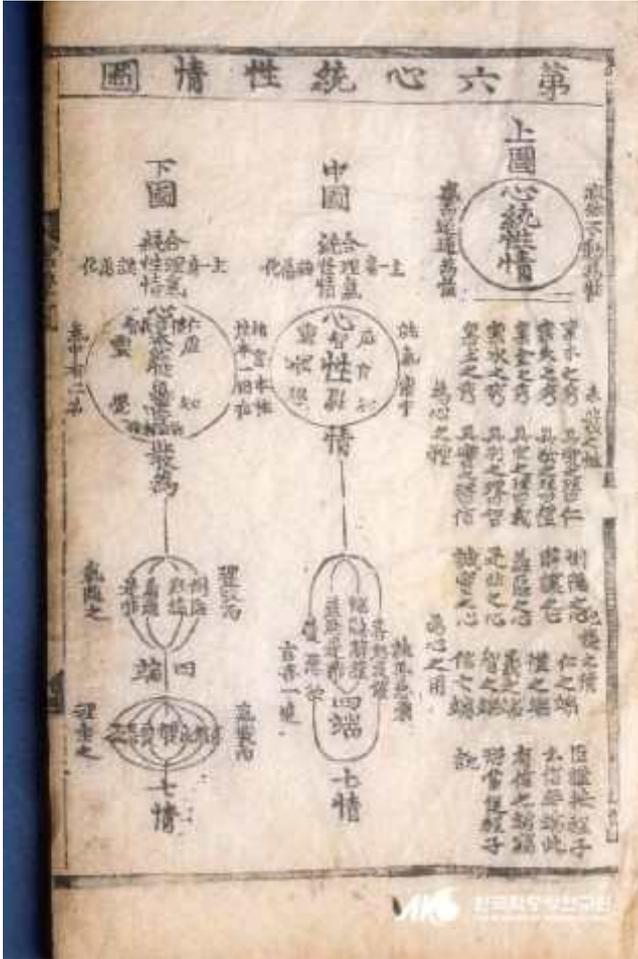
- 이론공부 : 널리 배움, 자세하게 배움, 신중하게 생각함, 분명하게 구별함

- 실천의 요체

- (1) 몸을 수양 : 말을 충실하고, 신의있게 하며, 행동을 독실하고 공경스럽게 함. 분노를 삼가고 욕심을 억제하며 선을 따르고 잘못을 고침
- (2) 일을 처리 : 정의를 바로잡고 이익을 도모하지 않음. 진리를 밝히고 그 공을 따지지 않음
- (3) 대인관계 :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않음. 행동해서 마음에 맞지 않으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음

* 학문은 오륜을 배우는 것일 따름이다. 그것을 배우는 순서 및 방법은 이론공부의 요체와 실천공부의 요체에 있는 것이다.

⑥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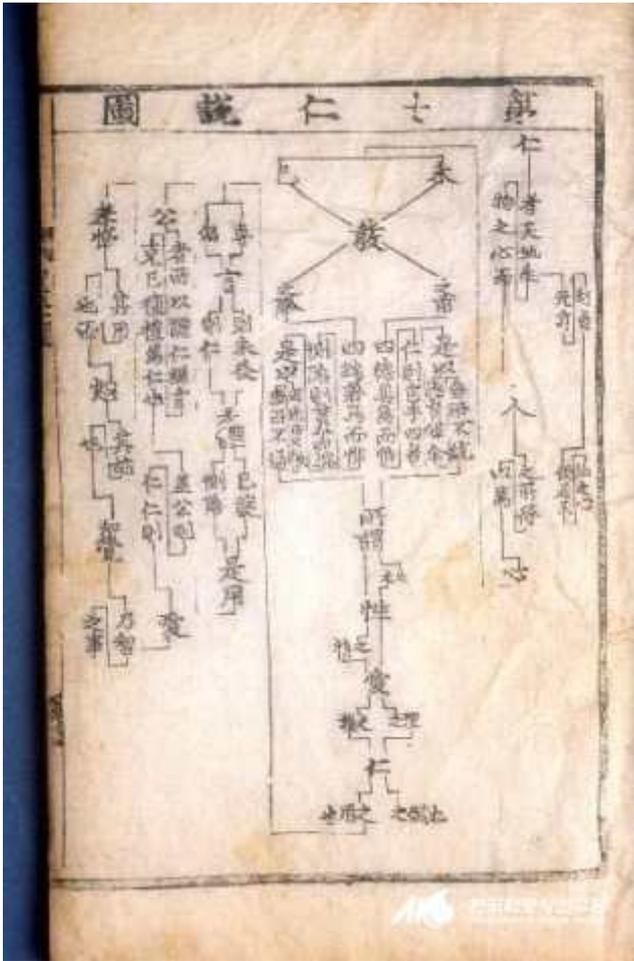


- 상도, 중도, 하도로 구성
- 상도는 정복심이 그렸고, 중도 및 하도는 이황이 그림
- 사단칠정, 마음의 작용, 도덕적 완성을 위한 관점에서 '성(性)', '정(情)'을 다룸
- 심통성정(心統性情)이라는 용어는 장재가 처음 사용한 말로 '마음(心이) 성과 정을 포함하면서 주재한다.'는 뜻을 가짐.
- 성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과 같은 도덕적 본성이고, 정은 4단 사단은 《맹자(孟子)》의 〈공손추(公孫丑)〉 상편에 나오는 측은지심(惻隱之心): 남을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 수오지심(羞惡之心):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 겸손하여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 잘잘못을 분별하여 가리는 마음.과 7정 기쁨(희 喜), 노여움(노 怒), 슬픔(애 哀), 두려움(구 懼), 사랑(애 愛), 미움(오 惡), 욕망(욕 欲)을 포함 함

정 곧, 정신작용이 일어나기 전의 근원적인 마음을 말하며, 정은 본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말함

- 본성은 마음의 기준이나 원칙이기 때문에 마음이 본성을 주재할 수는 없으므로 “심통성정(心統性情)은 마음이 본성의 기준에 따라 감정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단이란 마음을 통해 도덕적 본성을 알 수 있다. 단(端)이란 실마리를 의미한다. 사단은 도덕적 감정이라면, 칠정은 일반적인 감정이다.
- * 리(理)는 법칙을 포괄하는 도덕적 원리를 가리키며, 기(氣)는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 * 리와 기가 합하여 성과 정을 통괄하며, 몸의 주인이 되어 모든 변화를 주재한다.

⑦ 인설도(仁說圖)



- 주희가 쓰고 그린 그림
- 유학의 핵심사상인 인(仁)에 대하여 설명
- 인(仁)이 무엇이며 그리고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
- 천지의 마음에는 덕이 네 가지 있으니 원형이정(元亨利貞, “주역(周易)”의 ‘건괘(乾卦)’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역 하늘이 갖추고 있는 4가지 덕 또는 사물의 근본 원리를 말함. 元 : 으뜸원, 亨 : 형통할 형, 利 : 이로울 리, 貞 : 곧을 정)이다.
-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 인(仁)이다.
- 사람이 천지의 인(仁)을 얻어 마음으로 삼았다.
- 인(仁)의 본체는 생명의 본성이고 사랑함의 이치이며, 인(仁)의 작용은 본성의 감정이고 사랑함의 발현이다.
- 발하지 않은 것은 본체이고, 발한 것은 작용이다. 발할 때, 사단이 드러나는데 오로지 측은이 사단을 총괄한다.

- 공(公) 이란 인을 체득하는 방법이니, 자기를 이기고, 예로 들어가면 인이 된다.
- 공(公)적이면 인(仁)하고 사랑한다.
- 인은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생명의 마음이다.

⑧ 심학도(心學圖)



(敬齋箴圖)를 참조.

- 기뻐하고 화내는 것이 인심(人心)이다.
- 기뻐할 때 기뻐하고, 화낼 때 화내는 것이 도심(道心)이다.
- 인심은 타인과 관련된 마음인데 사적인 감정과 생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나칠 때가 많다.
- 도심은 감정의 적절한 상태, 곧, 인심이 올바르게 발휘되는 것을 말한다. 적절함이란 '리(理)'를 말한다. '리(理)'를 따르는 마음이 도심이다.
- 우리의 감정인 인심은 리와 무관할 수 없고, 리에 따라 실현될 수도 있다. 인심이 리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 도심이다. 리의 규정을 받으면서 실현되는 것이 도심이다.
- 인심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 발동하고, 도심은 성명(性命)의 올바름에서 근원한다.
- 경(敬)은 마음을 주재하고,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
- 경(敬)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재장도

⑨ 경재잠도(敬齋箴圖)



- 경(敬)의 공부 방법 및 경(敬,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

- 정신집중과 관련된 공부가 경(敬)이다. 경(敬)은 정신집중을 통해 주체성을 기르는 방법이다.

- 유학의 경(敬)은 도덕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 경(敬)의 공부 방법은 안(內), 밖(外), 리(理) 3가지 방법이 있다.

(1) 안을 향하는 공부 :

- 하나를 주로 하여 옮겨가지 않게 함
-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마음을 엄숙하게 함
- 마음을 수렴하여 그 마음 상태와 이질적인 것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음

(2) 밖을 향하는 공부 :

- 항상 깨어있게 함

(3) 리를 향하는 공부 :

- 마음이 발동하기 이전에 늘 삼가고 두려워

함

- 마음의 본질인 리에 대해 경건함을 유지 함

- 경(敬)에 대한 공부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시되었음

- 경의 공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는 일생을 살아가는 힘인 '주체성'을 기르는 매우 중요한 공부이다.

⑩ 속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



-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에 따라 경공부를 하는 방법을 설명

- 새벽에 두 단계, 낮에 두 단계, 저녁에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함

- 새벽

(1) 숙오(夙寤) : 일찍 잠에서 깨어남

(2) 신흥(晨興) : 새벽에 일어나남

- 낮

(1) 독서(讀書) : 책을 읽음

(2) 응사(應事) : 일에 대응함

- 저녁

(1) 일건(日乾) : 낮이 다할 때까지 부지런히 노력함

(2) 석척(夕惕) : 저녁에 두려워 하며 조심함

(3) 겸숙야(兼夙夜) : 낮부터 밤까지 정신과 기를 가다듬음

- 인설도의 원형이정에서처럼 자연의 진행순

서는 끝인 정에 갈다가 다시 처음인 원으로 이어진다. 자연은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가고, 사람도 반성하는 능력을 통해 자연 운행질서에 참여하게 된다.

- 하루 종일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참조 : 사단칠정[四端七情]

인성(人性)을 설명하는 성리학의 주요개념으로 사단과 칠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 송대이다.

유학의 수양론(修養論)에서의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혹은 줄여서 ‘사칠론(四七論)’이라고 부른다. 사단이란 네 가지 단서(端緒), 즉 네 가지 인간의 본성(本性)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情] 을 말하고, 칠정이란 일곱 가지 감정 [情] 을 말한다.

단(端)이라 함은 선(善)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진 시초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맹자의 용어로서 《맹자》 공손추편(公孫丑篇)에 나온다. 맹자 성선설의 근거가 되는 사단은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사양지심(辭讓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하며, 각각 인·의·예·지의 실마리가 된다. 칠정은 〈예기 禮記〉 예운(禮運)편에 나오는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 등 사람이 가진 7가지 감정을 말한다.

측은지심은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마음,
수오지심은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
사양지심은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선악시비를 판별하는 마음이다.

맹자에 의하면 이 사단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선천적인 도덕적 능력이다. 그러므로 맹자는 이것을 확충함으로써 인·의·예·지의 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측은지심의 경우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구하려는 마음이 순수하게 발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소박한 자발적인 행위를 보면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단설은 맹자 성선설(性善說)의 근본으로서 인간의 도덕적 주체 내지 도덕적 규범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칠정은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의 일곱 가지 감정인데, 《예기》 예운편(禮運篇)에서 비롯하여 당(唐)의 한유(韓愈)가 〈원성편 原性篇〉에서 7정으로 나누어 논하였다. 이것은 중국 고대에서 오래 전부터 있던 사상으로 인간이 외부 사물에 접하면 여러 가지 정이 표현되는 심리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즉, 칠정은 인간심리의 숨김없는 현실태를 총칭한 것이다.

이렇게 사단과 칠정은 별도로 주장된 것인데, 송대에 성리학이 성립되면서 이른바 사서(四書) 중심의 학풍으로 바뀌자 맹자의 사단설이 중시되고, 아울러 사단에 대립되는 개념인 칠정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자에 있어서는 사단과 칠정을 조선조 성리학에서처럼 첨예하게 대립시켜 상세하게 논의하지는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단칠정을 둘러싼 논의는 이황(李滉)과 기대승(奇大升)사이에서 시작하였다. 그 뒤 이이(李珥)가 기대승의 설을 지지하고 이황의 설을 반대함으로써 그 논의는 확대되어 성리학 논쟁의 핵심 문제로 등장, 사단·칠정뿐 아니라 이(理)와 기(氣)의 개념이 도입되고, 또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라는 개념이 함께 논의됨으로써 그 논쟁이 한층 복잡하게 되었으며, 정치 사회관에 이르기까지 두 유형의 사고 방식의 대립을 보이게까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주리학파(主理學派)·주기학파(主氣學派)로 학파가 나누어 그 뒤 많은 학자들이 학파적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였다. ‘주리’·‘주기’의 문구는 이황과 기대승 사이의 논쟁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각각 도덕론적 입장과 존재론적 입장을 상징하고 있다. 즉, 주리·주기의 차이의 시원은 인간의 측면에서 자연을 해명하려는 입장과 자연의 측면에서 인간을 해명하려는 입장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이황 이전에 정지운(鄭之雲)이 <천명도설 天命圖說>에서 “사단은 이에서 발현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현한다(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고 하였는데, 이 문구를 이황이 개작하여 “사단은 이가 발현한 것이요, 칠정은 기가 발현한 것이다(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기대승이 “칠정 이 외에 달리 또 사단이라는 정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황에게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문제가 발단되었다.

그 후 이황은 자기설을 “사단은 이가 발현하는데 기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요 칠정은 기가 발현하는데 이가 거기에 타는 것이다(四端理發而氣隨之七情氣發而理乘之)”라고 고침으로써 ‘발(發)’에 더욱 강조점이 옮겨지게 되고, 또 ‘수(隨)’자와 ‘승(乘)’자를 대치시켜 은연중 이(理)를 강조하려는 생각을 표현하게 되어, 결국 존재론적 개념인 이·기의 개념에 혼란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이(理)는 발현할 수 없는데, 이러한 능동적 발현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는 이·기 개념으로는 그의 도덕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해준다.

이이는 이황이 사단을 이(理)의 발현 즉, 이성적 작용으로 파악한 데 대해 이성적 작용도 작용인 이상 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이는 무위(無爲)라는 주자의 설을 계승, 존재와 도덕을 일괄하여 이·기관계를 이른바 ‘기발이승일도설’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칠정은 기의 발동의 총칭이므로 사단은 칠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본연지성(本然之性)·기질지성(氣質之性)과의 관계와 같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경하지 않고 말한 것이며, 기질지성은 도리어 본연지성을 경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칠정을 경하지 못하나 칠정은 사단을 경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인심·도심은, 이황에서처럼 대립적이기는 하나, 그것이 사단·칠정과 같은 대립 관계는 아니라고 하였다.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는 주장에서 이이는 다시 칠정과 사단을 비슷한 것끼리 연결시켜, 측은은 애(愛)에, 수오는 오(惡)에, 사양은 구(懼)에, 시비는 ‘희로(喜怒哀)의 당연성 여부를 아는 것’에 배속시킨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칠 논쟁은 이황·기대승·이이의 초기 논쟁에서는 이황의 ‘발(發)’개념의 오해, 이이의 사칠배속의 천착 등으로 개념상의 혼란이 야기되어 논쟁의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았다. 더욱이 존재론적 시각(사실의 차원)과 도덕론적 시각(가치의 차원) 상호 간의 입장 이해

가 전제되지 않아 논쟁이 언어상의 논쟁에 맴돌았다. 그러나 그 뒤 많은 학자들이 다시 논의함으로써 개념이 다시 분석, 정리되어 이황·이이의 사고 방식이 점차 명료하게 되어 갔다. 우리 나라 유학 사상사에서 사단칠정론은 성리학 이론 논쟁의 핵심이지만 이것이 사상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을 보는 두 유형의 사고정형(思考定型)으로서 이황의 이상주의, 이이의 현실주의를 형성하였다.